

미륵사지 창건주 선화 공주나 사택 왕후나 '설전'

한국사상사학회 '익산 미륵사지와 백제 불교' 학술발표회

선화 공주의 익산 미륵사 창건설은 과연 허구일까? 1월 14일 익산 미륵사지서적실에서 사리봉안기가 발견됐다. 사리봉안기는 선화공주에 의한 익산 미륵사 창건설을 비롯해 서동과 선화 공주의 사랑이야기까지 허구로 몰고 있다. 지금까지 백제 무왕의 왕비는 <삼국유사>에 근거해 신라 신평왕의 셋째공주 선화로 알려졌다. 사리봉안기는 "우리 백제 왕후는 좌평 사택적덕의 딸로..."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한국사상사학회(회장 최기영)가 3월 14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익산 미륵사지와 백제 불교'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는 선화 공주의 실존에 대한 설전이 오갔다.

사리봉안기를 최초 번역한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주제발표 '백제 무왕의 왕후와 미륵사 창건'을 통해 사리봉안기 기록에 근거해 사택 왕후에 의한 미륵사 창건을 지지했다.

김상현 교수는 "지금까지 <삼국유사>의 기록이 맞았다고 해서 백제 무왕에 대한 기록도 맞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왕후사와 미륵사를 혼동해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사리봉안기는 미륵사 창건 당시(639년)에 작성됐지만 <삼국유사>는 13세기(1281년)에 설화적 윤색을 더해 쓰여졌다"며 "서동과 선화 공주 이야기는 설화일 뿐 역사로는 보기 어렵다. 사리봉안기의 기록을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화 공주가 백제 무왕의 왕후였거나, 선화 공주가 미륵사 창건을 발원하고 사택 왕후가 완공시켰을 가능성조차도 희박하다"고 못 박았다.

김기태 박사(국가기록원)과 조경철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는 각각 주제발표 '무왕대 미륵사 창건과정과 불교계'와 '백제 익산 미륵사 창건의 신앙적 배경'에서 선화공주가 미륵사를 창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 박사는 "<삼국유사>가 선화 공주를 '부인(夫人)'으로 표현했고,



3월 14일 서강대 다산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국사상사학회 학술발표회 모습.

<삼국사기>에는 '무왕이 빈(嬪)과 큰 연못에서 놀았다'는 기록도 있는 것으로 볼 때 무왕이 왕비와 부인을 여럿 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경철 박사는 선화 공주와 사택 왕후가 미륵사를 나눠 창건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동원(東院)과 서원(西院) 중원(中院)의 '3원 병립식 구조'를 갖췄던 미륵사의 동원과 서원은 사택 왕후가, 목탑이 있던 중원은 선화 공주가 조성했다는 주장

이다. 조 박사는 "미륵사는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조성됐으나, 이번에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는 미륵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제 명문가였던 사택씨는 법화신앙과 관계가 깊었다"며 "법화신앙을 가졌을 사택 왕후가 미륵사 전체를 지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상현 교수는 불교사

상을 석가모니신앙, 미륵신앙, 화엄신앙 등으로 갈라보는 시각 자체가 무리"라며 "미륵불은 석가모니불에 의해 미려불로 약속 받았다. 석가모니불에 대한 신앙 없이는 미륵신앙도 존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사택 왕후와 선화 공주가 나눠 미륵사를 지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륵사지 발굴설과 관련해 3원의 창건 시기가 달랐다거나 창건 발원자가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 사리봉안기도 사택 왕후가 정재를 회사해 기림을 세웠다고 기록했다. 기림은 삼원으로 된 미륵사 전체를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겸)가 21일 국민대 경강관에서 '익산 미륵사지 출토 유물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개최한 제82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손환일 연구교수(경기대)가 "미륵사지서적에서 사리봉안기와 함께 발견된 18점의 금제소형편은 백제인이 사용하던 금화(金貨)"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하택신회선사 어록' 발간

박건주 박사 번역

하택신회 선사(684~758)는 육조 혜능 선사의 제자다. 활대(滑臺)의 종론(宗論)으로 육조 혜능 선사를 보리달마의 종지를 이은 정통으로 만든 인물이다. 하택신회 선사는 중국 선종사는 물론 육조 혜능의 법맥을 이은 한국 선종에도 중요한 업적을 이뤘지만 정작 사료 등이 부실해 애곡·평하돼 왔다.

박건주 박사(성균관대·사진)는 불교학연구지원사업(이사장 범상)의 지원을 받아 <하택신회선사 어록>(씨아이알 펴)을 발간했다.

2007년 10월 불교학연구지원사업 소장학자지원사업 번역부문을 수혜자에 선정된 박 박사는 하택신회 선사에 관한 중요 자료인 둔황 문헌의 번역을 시작하던 1년 반 만에 성과물을 냈다.

두 번째 불교연구총서로 발간된 책은 1세기 전 둔황에서 발견된 하택신회 선사의 보리달마남종정사비문 등 어록 법문과 6종을 번역·수록했다.

박건주 박사는 "둔황문헌의 하택신회 선사 어록을 번역해 △초기선종의 선법 △문법과 접법의 구분 △남북종교의 문제 △후대에 전개된 선종사상 △그의 △종법의 남북회통론에 끼친 영향 △후대 선법과의 차이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학연구지원사업은 한국불교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장학자를 지원하려는 정일 스님의 원력으로 2004년 출범했다. (02) 2275-8603 조동섭 기자



'일본 오타니대학 소장 고려대장경' 나와

일본 소재 고려대장경의 목록집이 발간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진, 이하 연구소)는 <해외전적 문화재조사목록-일본 오타니대학(大谷大學) 소장 고려대장경>을 3월 12일 발간했다. 이번 목록집 발간은 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해외 기관 소장 전적(典籍) 현황 및 실제 파악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오타니대학 고려대장경은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으로 587장자에 4995첩이 보관돼 있다. 해인사 고려

대장경판(국보 제32호, 세계기록유산)을 찍어낸 것으로 현존 최고(最古) 보관본이다.

연구소 김인규 학예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국(刺手, 나무 등을 조각하는 사람)들의 조직과 작업장소로 보이는 중방, 등방 등을 확인했다"며 "국내에는 보관본이 없어 대장경 판간 당시의 면모를 살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대국대학 소장본은 국내 고려대장경 연구에도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불교미술 새로보기' 강연회 28일 열려

불교미술 전반에 대해 두루 알아볼 수 있는 강연회가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 이하 박물관)은 3월 28일 오후 1시 박물관 강당에서 '불교미술 새로보기' 강연회를 개최한다. 박물관이 3월 24일~5월 10일 개최하는 '통일신라조각展'에 맞춰 기획된 이번 강연회에서는 미술사학자 강우방 前 박물관장이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회에서 강 前 관장은 조형 예술의 생성, 변화 과정과 이에 상호 조응하는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생긴 미술의 변화와 향후 미술사 연구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도 조망된다.

강연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석 희망자는 박물관 홈페이지 '이달의 행사(교육 프로그램)'에서 선착순(150명) 수강신청을 받는다.

한편 강우방 前 관장은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을 역임했다. 현재 일한한국미술연구원에서 불교미술을 중심으로 한국미술사 전반을 정리하고 있다. (054)740-7536 김진성 기자

'수월관음도' 展

고려불화 최고 걸작 수월관음도가 14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다.

양산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범해)은 4월 30일~6월 8일 '일본 가가미신사 수월관음도 특별전'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이 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호암미술관에서 1995년 '대고려국보전' 때 전시된 후 두 번째다.

이 불화는 1310년 충선왕의 비속비가 발원해 제작됐으나 14세기 왜구가 약탈해 갔으며, 현재 일본 국가지정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성보박물관 정경수 유물관리담당은 "공식 보원가가 150억원에 이르지만 국내 소개에 의미를 두고 관람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며 "세계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고려 수월관음도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귀중함을 확인시키고 나아가 국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북방 사문천이 밝은 악귀는 야차·나찰·지신"

불교학연구회 봄 논문발표회에서 안철상씨 주장



동서 남북을 관장하는 호법신 사천왕. 그 가운데 북방을 관장하는 비사문천(毘沙門天)이 밝고 선 것은 악귀며 지신(地神)을 뜻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분각)가 3월 14일 동국대 다산관에서 개최한 봄 논문발표회에서 안철상(서강대 박사과정·사진)씨는 '교차문화적 맥락에서 본 동아시아 초기 불탑신앙 수용에 있어 사천왕상 악귀와의 정체성에 대한 기호

학적 연구'를 발표했다. 안씨는 "한국의 사리함에 나타난 도상에는 북방다문천왕 발발에 야차와 나찰이 악귀로 표현됐고, 지신 역시 북방다문천왕이 밝고 있는 형상"이라며 "동아시아의 사리함과 불탑 등에 나타난 사천왕상은 대체로 발아래 악귀가 표현된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야차(夜叉)는 인도의 야크사(Yaksa)의 음역으로 <리그베다> 등에 등장한다. 야크사의 여성형인 야크니쉬는 토지를 관장하는 지모신(地母神), 나무의 신 등으로 전해진다.

안철상씨는 "불탑 승배가 시작될 무렵 인도의 민간신앙이 이교

로 취급되면서 야차도 악귀로 재현됐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민간신앙을 이교로 취급한 것은 아소카왕의 왕즉불(王即佛) 사상 때문"이라며 "패권을 이룬 상징을 토착신앙의 제압으로 표현해 불탑 등에 야차를 그렸다"고 말했다.

안철상씨는 이를 사리신앙과도 연결해 소개했다. 탈옥 후 유골을 수습하던 당시의 2차 장법(葬法)이 1차 장법인 화장(火葬)으로 바뀌면서 지신이 악귀로 배척했다는 주장이다.

안씨는 "신라 진흥왕과 선덕여왕은 중국에서 사리를 들여오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형

성하려 했다"며 "2차장법을 하는 토착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사리신앙이 이용되면서 사체의 탈옥 등에 관여할 것이라 믿어졌던 지신은 악귀로 재현됐다"고 강조했다.

유근자 박사(동국대)는 논평을 통해 "감은사 서탑 사리기의 북방 비사문천 발 아래 인물은 밝힌 것이 아니라 비사문천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있다"며 "타파해야 할 악귀가 아니라 비사문천을 받들고 있는 신신의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환기(서울대 박사과정)씨가 '유식불교법신 개념의 심리학적 의미'를, 이길주(외대교수·제주대)가 '고대인도의 여성불교수행자의 출가동기'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덕운스님의 봄철 대특강 보약짓기 학인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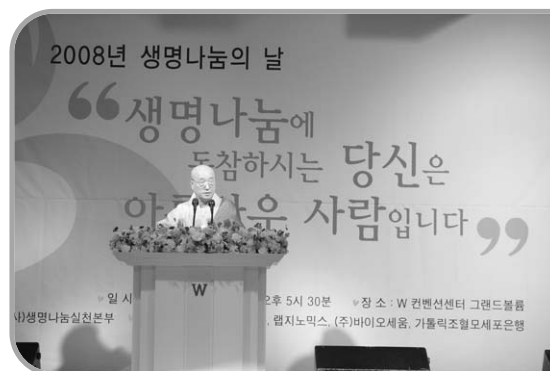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가족의 건강을 내손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을 위해 덕운스님의 다년간의 비방인 '보약짓는 방법'을 전수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보약짓기'를 배워 내손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신도님의 건강을 지키도록 합니다.

- 교육기간 : 2009년 4월 2일, 3일부터 (총 12주)
- 장 소 : 활인정사 법당
- 접 수 : 동양의학방송국 (사전접수요망)
- 교육시간, 내용, 보시금 :
 -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보약짓기 / 보시금(월 50,000)
 - 금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전통 사암스님의 활인 침법 / 보시금(월 150,000)
 - 금요일 : 오후 2시 - 4시 한약 처방학 / 보시금(월 150,000)
- 강 사 : 덕운스님(동양의학방송국 대표) · 박정아교수(세명대학교 외래교수)
- 문 의 : 02-3487-2311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스님)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1994년 법장스님에 의해 설립된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장기이식결연기관이며 불교계를 대표하는 의료사회복지를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 장기등기증 희망등록 및 결연
- 조혈모세포 기증자 등록
- 헌혈은행 사업
- 환자 치료비 모금 및 지원
- 장기등기증자를 위한 천도재 봉행 등

장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보시행의 실천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장기이식 등록기관
 장기기증 신청 및 문의 **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FAX) 02-734-8052 www.lisa.or.kr